

# 포르투갈 리스본 교환학생 후기(IST-Instituto Superior Tecnico)

재료공학부 전유진

## 1. 리스본 공과대학을 선택한 이유 및 장단점

교환학생을 가고자 마음먹은 후 가장 시간을 들여 고민한 부분은 어느 도시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Instituto Superior Tecnico (이하 IST)로 22학년도 2학기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정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교환학생을 후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어떤 점을 위주로 생각했고, 장단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환학생을 가기로 한 직후, 먼저 미주, 유럽, 아시아 중 어디를 가고 싶은지 고민했습니다. 서양 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시아권을 제외하고 미주권과 유럽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유럽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주권의 높은 학비와 물가, 기숙사비 등으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여행을 중점에 두고 교환학생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차량이 없이 미주권을 여행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행을 결정한 후, 가고 싶은 나라 및 도시들의 장단점을 정리하여 순위를 매겼습니다. 특히 리스본을 1순위로 쓰게 된 이유는 다른 유럽 도시보다 물가가 월등히 싼 편이었고, 치안이 굉장히 안전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리스본 공과대학으로 6개월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교환을 모두 마친 지금 실제 생활하며 느낀 장단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점부터 소개하자면, 앞서 말했듯 리스본은 다른 유럽 도시보다 물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웬만한 외식을 10~12유로로 할 수 있고, 커피, 빵 등은 대부분 5유로 이하입니다. 교통비 역시 아주 저렴해서, 한 달에 30유로 정기권을 사용하면 리스본 내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비도 한국보다 약간 저렴한 정도입니다. 값싼 물가 외에 안전한 치안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새벽 서너 시에도 시내에는 사람이 꽤 돌아다니며, 여자 혼자 밤늦게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또 겨울에 대부분 춥고, 흐린 다른 유럽 날씨와 비교하면 매우 화창하고 맑은 날씨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브라질 등 남미 인구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포르투갈의 특성상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동양인에 대해 편견 및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굉장히 영어를 잘합

니다. 식당 종업원, 버스, 택시 기사님 등 대부분이 영어를 쓸 수 있으므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리스본 내 동양인 또는 한국인 비율이 아주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도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에는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실제 생활을 겪어보면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 전체 교환학생 중 한국인이 자랑 제 친구 단 두 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고충 등을 나누기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리스본 내에 한식당이 다섯 군데 남짓하기에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신중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기숙사 시설이 매우 좋지 않아 대부분 교환학생이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해 생활합니다. 따라서 기숙사 생활을 기대하시는 분이시다면 역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2. 준비

교환교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메일로 모든 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학교 홈페이지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수업을 들을까였는데, 저는 여행을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수업 중에 일찍 종강하는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IST는 한 학기를 P1, P2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P1은 9월 개강 후 11월 둘째 주까지를, P2는 11월 셋째 주부터 2월 중순까지를 의미합니다. 저는 전공과목 두 과목을 들어 총 6학점을 신청했는데, 두 과목 전부 P1에 진행되는 강의로 수강하여 11월 둘째 주에 종강 후 2월 귀국까지 약 4달가량을 여행하며 지냈습니다.

수강계획을 세우셨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비자입니다. 비자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대사관으로 가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후 비자 발급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국 전에 집을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IST 개강 몇 주 전에 메일로 기숙사 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선착순으로 받고 뽑는 인원이 매우 적는데다 시설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대부분 학생이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게 되는데, 개강 후에는 매물이 거의 남지 않아 집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출국 전에 uniplace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3. 교환학생 생활

저는 9월 둘째 주 개강 전 첫째 주에 이탈리아를 일주일 여행했습니다. 2학기 교환학생을 가는 분 중 후에 여행할 시간이 많지 않으시다면, 7월이나 8월경에 미리 여행을 가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유럽은 여름에 여행가기 좋은 도시들이 많으므로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강 첫 주에는 교환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스본 시내 워킹 투어, 근교 여행 및 서핑 투어도 준비되어 있어 새로운 경험과 친구들을 사귄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서핑은 포르투갈의 대표 스포츠로, 꼭 한번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하나는 Polymeric technology에 관련된 고분자 수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metallic forming을 다루는 금속 제련 수업이었습니다. 두 수업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는데 교수님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며 강의도 매우 훌륭히 잘하셔서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두 수업 다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치는 시험과 실험을 바탕으로 제출하는 보고서 및 발표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면서도 학생들 자율적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보고서를 써야 해 얻어가는 것이 매우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개강 후에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포르투갈어 수업이 열립니다. 희망하는 학생만 약 170유로의 수강비를 지불하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 저녁 시간에 하는 강의였음에도, 약 8주 정도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어서 수강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재밌었고, 포르투갈어 수업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 언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천해 드립니다.

11월 둘째 주에 종강한 후에는 가고 싶었던 나라들을 여행했습니다. 거의 20 도시 넘게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각 도시의 음식을 먹고, 생각만 했던 수많은 장소를 가보며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 4. 느낀 점

저는 진심으로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고민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갔다 온 후 해외 유학을 가야겠다고 결심한 만큼,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꼭 도전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